

## 성인기의 생애주기별 사회적지지망 연구\*

정추자<sup>1)</sup> · 이선옥<sup>2)</sup> · 강정희<sup>3)</sup> · 김정아<sup>4)</sup> · 김혜령<sup>5)</sup>  
오경옥<sup>6)</sup> · 이숙자<sup>7)</sup> · 전화연<sup>8)</sup> · 홍성경<sup>9)</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지지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학자마다 정의하는 것이 다양하지만, 인간의 스트레스 완화나 건강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개념(Khan & Husain, 2010)이라는 것에는 간호학뿐만 아니라 인접학문에서도 합의가 되고 있다

각 생애주기와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로는 학령기 아동(전미숙, 김현옥, 2011)과 청소년기(노필순, 윤혜미, 2007)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부터 노인기(반필주, 2010)까지 다양하며,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도 만성관절염(이선옥, 2003a), 만성폐쇄성폐질환(김란이, 용진선, 2005), 암환자(김연정, 이광자, 2010)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에서 구체적인 생애주기별 사회적지지망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이선옥, 2003b).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로 구분하며, 기능적 지지는 지지원천, 지지유형, 지지만족 등을 들 수 있고(이선옥, 2003b; Murrell, Norris, & Chipley, 1992), 구조적 지지는 지지원과 접촉의 빈도, 밀도, 안정성, 동질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능적 지지에 비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선옥, 2003b).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사회적지지망은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으로, 타인과의 접촉 빈도, 관계원의 수 등이 포함되어 세부 생

애주기에 따라 사회적지지망의 속성이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강정희 등, 2008; 김혜령 등, 2008; 엄은하, 2007; 오가실 등, 1999)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지지망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기는 전체 생애주기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져 있는 기간이므로 성인기를 세부 주기별로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에 관한 특성들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성인기의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간호 실무에서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오세진 등(2010)은 성인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이에 대하여, 초기에는 사회적 친밀감을 성취해야 하는 과업을 이루는 시기로 우정이나 사랑 등의 사회적 성취나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므로 또래 그룹이나 이성친구가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되고, 부모 또한 경제적 지지원이 된다고 하였다. 중기에는 신체적 건강과 생성감에 중요도를 두는 시기로 직업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책임지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시기로 배우자, 부모, 자녀, 직장 선후배, 친구 등과의 다양한 관계가 중요한 지지원이 된다고 하였다. 성인후기는 은퇴를 하여 경제적 상실로 충격을 받는 시기이며,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이 시기가 더욱 연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성인기의 세부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에 대하여 논하였다. 은영, 고성희, 김명자, 김진선, 박명화(2010)는 성인후기를 노인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친구들과 배우자 혹은

**주요어 :**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망, 생애주기, 성인기

\*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 연구회 회원들에 의해 수행되었음.

1) 한중대학교 교수, 2) 방승통신대학교 교수(교신저자 E-mail: solee@mail.knou.ac.kr)

3) 경북대학교 교수, 4) 세명대학교 교수, 5) 인제대학교 교수, 6) 충남대학교 교수

7) 고려대학교 교수, 8)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9)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투고일: 2012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5일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30일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사망하여 외로움은 더해지고 이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소외감을 느끼는 등, 질병, 빈곤, 무위 그리고 고독이라는 4대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는 시기라고 하였다. 반필주(2010)는 이 시기는 질병과 연관되는 도구적 지지나 물질적 지지의 중요성이 커지며 따라서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기의 초기, 중기, 후기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에 따라 기대하거나 원하는 사회적 지지의 특성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김정선과 신경림(2004)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 연구를 통해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집단비교를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성인기를 생애주기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을 대변하는 사회적지지망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여 보면, 성인기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사회적 지지 간호중재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윤진(1985)은 생애단계 분류로서 김종서의 평생교육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분류한 유아기(0-6세), 아동기(6-12세), 청년전기(12세-19세), 청년후기(19-25세), 성인전기(25-35세), 성인후기(35-60세), 노년기(60세 이후)를 제시하였고, 박삼근, 조혜선, 윤혜경(2005)은 생애주기별 성역할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기·청년기(3-17세), 성인에의 과도기(17-22세), 성인전기(22-40세), 중년에의 과도기(40-45세), 중년기(45-60세), 노년에의 과도기(60-65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분류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생애단계 분류가 연령별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로 하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연령을 구분,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팀도 1980년대와는 다르게 한국인의 만혼의 추세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성인기를 초기는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중기는 만 40세 이상에서 64세까지, 후기를 만 65세 이상으로 세분하였는데, 이와 같이 분류한 근거는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의 넓이와 깊이를 고려하였다. 성인초기에는 배우자를 탐색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둔 시기로 사회적 관계는 청년기에서 별 변화 없이 진행되고, 성인중기는 자녀의 성장 및 입학, 졸업과 더불어 자녀의 결혼으로 사돈이 생기는 등 사회적 관계가 더욱 넓어지고 더욱 복잡해지는 시기를 염두에 두었으며, 후기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다시 줄어드는 시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지지를 주개념으로 한 연구들은 한정된 연령 군에 국한하여 연구를 하였다. 성인기도 성인초기, 중기 및 후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기 전체를 세부적인 생애주기로 나누어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인 사회적지지망

을 지지원의 종류, 중요도와 지지원의 수를 서로 비교하고, 대상자의 성인기 생애주기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중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초기, 중기, 후기의 생애주기별 사회적지지망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성인기 생애주기 분포를 파악한다.
- 성인기 생애주기별 주요 사회적 지지원과 그 우선순위 및 지지원 수를 확인한다.
- 성인기 생애주기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을 비교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인초기, 중기, 후기의 생애 주기별 사회적지지망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및 전남 6개 지역에서 연구자들의 접근성에 의한 편의 추출로 서울 170명, 경기 352명, 강원 175명, 충북 107명, 충남 144명 및 전남 9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기의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성인초기 454명, 성인중기 262명, 성인후기 331명으로 총 1,047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 연구 도구

사회적 지지도구: Norbeck, Lindsey와 Carrieri (1981)가 개발한 Norbeck의 사회적 지지 도구(NSSQ)를 Oh(1984)가 한국말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NSSQ는 11개 문항으로 총 기능적 지지, 총지지망, 총상실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지지망은 지지원수와 지지원과의 관계유지기간, 접촉빈도로 구성되었다. NSSQ의 기록방법은 가장 중요한 사람 순서로 리스트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지지원(사람)을 순서대로 기록하게 하였고, 대상자와의 관계를 명시하게 하였으며, 지지원의 기록은 24명까지 기술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Norbeck 등(1981)의 연구

에서 조사한 이 도구의 신뢰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97이었다.

##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1차로 2007년 5-9월에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초기, 중기, 후기별로 873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차로 2010년 1-3월에 성인후기 174명을 추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인초기 대상자는 각 대학 교수인 연구자들이 해당 대학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성인중기 대상자는 지역주민들을 편의 표집하여 같은 내용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인후기 대상자는 동사무소와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을 파악한 다음 편의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담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1차 수집된 대상자의 수가 미흡하여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대한 표본수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자와 연구조원들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해 구두로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법과 면담법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지 및 면담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1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주요 사회적 지지원은 응답자가 기술한 내용에 대한 누적 백분율 50.0%선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지원의 관계 순위는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생애주기별 지지원수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ANOVA와 사후분석(Scheffe)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기 생애주기별 지지원수 차이 검증은 ANOVA, t-test를 구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일반적 특성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성인초기 22.4세, 성인중기는 48.9세, 성인후기는 75.8세 이었고, 성별 분포는 남성이 성인초기 43.4%, 성인중기 51.1%, 성인후기 28.4%로 성인후기에는 여성이 73.6%로 가장 높았다. 결혼 상태는 성인초기는 미혼이 89.4%, 성인중기는 기혼이 92.4%, 성인후기는 이혼이나 사별을 한 대상자가 57.6%로 가장 높았다.

경제 상태는 성인초기와 중기에는 ‘중’이 각각 79.2%, 87.7%이었고, 성인후기에는 ‘하’가 69.5%이었다. 종교 분포를 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성인초기 57.8%, 성인중기 72.0%, 성인후기 63.6%로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는 종교가 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life-cycle stage of adults

(N=1,04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Young adult	Middle-aged	Senior adult	Total n (%)
		(n=454)	(n=262)	(n=331)	
		n (%)	n (%)	n (%)	
Age	Mean±SD	22.42±5.25	48.91±5.93	75.83±7.54	45.87±23.73
	Range	18-39	40-64	65-96	18-96
Gender	Male	197(43.4)	134(51.1)	87(28.4)	418(40.0)
	Female	257(56.6)	128(48.9)	243(73.6)	628(60.0)
Marital status	No	406(89.4)	10(3.8)	4(1.2)	420(40.2)
	Yes	48(10.6)	242(92.4)	136(41.2)	426(40.7)
	Divorce or w/o spouse	-	8(3.1)	190(57.6)	198(18.9)
	Others	-	2(.8)	-	2(.2)
Economic status	High	25(5.5)	7(2.7)	13(3.9)	45(4.3)
	Middle	357(79.2)	229(87.7)	88(26.6)	674(64.6)
	Low	69(15.3)	25(9.6)	230(69.5)	324(31.1)
Religion	Yes	262(57.8)	188(72.0)	210(63.6)	660(63.2)
	No	191(42.2)	73(28.0)	120(36.4)	384(36.7)
	None	-	1(.9)	116(36.0)	117(11.3)
Family size(number)	1-2	22(4.9)	20(7.6)	124(38.5)	166(16.1)
	3-4	309(68.8)	167(63.7)	38(11.8)	514(49.8)
	5-6	112(24.9)	71(27.1)	29(9.0)	212(20.5)
	Above7	6(1.3)	3(1.1)	15(4.7)	24(2.3)

\* Non-responses are excluded.

\* w/o : without

는 경우가 생애주기별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성인초기와 중기는 '3.4명'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각각 68.8%와 63.7%였으며, 성인후기는 '1-2'명으로 38.5%였다. 반면 '가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후기는 36.0%였으며, 성인초기와 중기는 '가족이 없다'에서는 응답자가 없거나 미미하였다<Table 1>.

**생애주기별 주요 지지원과 우선순위**

생애주기에 따른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과 우선순위는 <Table 2>와 같다. 지지원의 중요성은 누적 백분율 50.0%선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때 지지원의 우선순위가 9번까지 포함되었다. 9번까지 표시한 대상자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들 이었고, 우선순위는 생애주 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중요한 지지원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성인초기에는 1, 2 순위가 '부모'라고 응답하였으며, '형제'가 3순위이며, '친구'

는 4순위에서 9순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인중기에는 '배우자'가 1순위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를 2순위와 3순위에 두었으며, 형제가 4순위, 친구가 5순위에서 9순위까지를 차지 하였다. 성인후기에는 자녀를 1순위에서 7순위까지에 두었으 며, 친구를 8순위와 9순위에 둔다고 응답하였다.

**생애주기별 지지원수**

생애주기별 지지원수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생애주 기별 지지원수는 성인초기에 평균 13.23명이고, 성인중기에 평균 12.93명이며, 성인후기에 평균 5.30명으로 나타났고, 성 인기 생애주기에 따른 지지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66.43, p<.001). Scheffe로 사후 차이 검정을 한 결과 성인초기와 성인후기 간, 성인중기와 성인후 기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인초기의 지지원수는 20-29세 에 12.95명, 30-39세에 15.70명으로 연령대별로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F=3.71, p<.050). 성인후기의 지지원수도 65세

<Table 2> Social support resources and their priority ranks according to each life-cycle stage of adults (N=1,047)

Priority ranks	Each life-cycle stage of adults						χ <sup>2</sup>	p
	Young adult		Middle-aged		Senior adult			
	social support resource	n (%)	social support resource	n (%)	social support resource	n (%)		
1	Parent	330(72.7)	Spouse	124(48.4)	Children	144(48.0)	727.03	<.001
2	Parent	309(68.1)	Children	103(40.6)	Children	178(69.8)	585.33	<.001
3	Sibling	221(9.1)	Children	103(40.9)	Children	150(71.8)	545.08	<.001
4	Friend	228(2.4)	Sibling	57(23.3)	Children	103(62.4)	488.21	<.001
5	Friend	248(9.8)	Friend	72(31.2)	Children	81(59.1)	515.69	<.001
6	Friend	261(6.6)	Friend	72(33.2)	Children	48(46.2)	371.23	<.001
7	Friend	238(64.2)	Friend	59(29.8)	Children	29(35.4)	331.73	<.001
8	Friend	214(63.3)	Friend	48(26.7)	Friend	16(22.9)	240.05	<.001
9	Friend	200(62.3)	Friend	48(28.9)	Friend	19(30.6)	161.36	<.001

\* Non-responses are excluded.

<Table 3> The number of social support resources according to each life-cycle stage of adults

Life cycle	Age	n (%)	Mean±SD	F	F	p	Scheffe
Young adult <sup>1</sup>	Below 19	142(31.3)	12.93±7.06	3.71*			
	20-29	261(57.6)	12.95±6.43				
	30-39	50(11.0)	15.70±7.43				
	Mean	454(43.4)	13.23±6.79				
Middle-aged <sup>2</sup>	40-49	149(57.1)	13.36±7.13	1.47	166.43***	<.001	3< 1, 2
	50-59	94(36.0)	12.75±6.60				
	60-64	18( 6.9)	10.39±8.75				
	Mean	262(25.0)	12.93±7.07				
Senior adult <sup>3</sup>	65-69	81(24.7)	8.62±8.00	15.89***			
	70-79	143(43.6)	4.32±4.16				
	80-89	90(27.4)	3.81±2.73				
	Above 90	14( 4.3)	5.43±2.90				
Total		331(31.6)	5.30±5.39				
		1,047	10.64±7.41				

\*p<.050, \*\*\*p<.001

<Table 4> Distribu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life-cycle stage of adul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Young adult (n=454)			Middle-aged (n=262)			Senior adult (n=331)			Total (N=1,047)		
		Mean±SD	t / F (p)	t / F (p)	Mean±SD	t / F (p)	t / F (p)	Mean±SD	t / F (p)	t / F (p)	Mean±SD	t / F (p)	
Gender	Male	12.40±6.97	-2.31 (.021)	13.45±7.46	1.22 (.226)	5.95±6.64	1.31 (.190)	11.36±7.60	2.63 (<.001)				
	Female	13.88±6.59		12.38±6.61		5.07±4.87		10.15±7.24					
Marital status	No	12.91±6.66		14.70±5.81		2.75±1.71		12.85±6.68					
	Yes	15.98±7.34	-2.99 (.003)	13.00±7.15	1.00 (.393)	7.54±6.94	22.46 (<.001)	11.57±7.67	84.67 (<.001)				
	Divorcee or w/o spouse	-		9.13±6.03		3.76±3.19		3.97±3.49					
	Others	-		12.00±5.66		-		12.00±5.66					
Economic status	High	10.44±5.78		15.43±6.50	2.44 (.090)	12.08±8.48	74.74 (<.001)	11.69±6.84	113.29 (<.001)				
	Middle	13.43±6.88	2.29 (.102)	13.16±6.99		9.44±6.39		12.82±6.97					
	Low	13.41±6.54		10.09±7.70		3.33±3.09		5.97±6.17					
Religion	Yes	13.45±6.79	0.75 (.456)	12.98±6.70	0.06 (.955)	5.95±5.59	3.01 (.003)	10.93±7.33	1.56 (.120)				
	No	12.97±6.80		12.93±7.28		4.18±4.87		10.18±7.54					
Family size	None	-		1.00±.00		2.86±2.45		2.85±2.44					
	1-2	13.45±7.53		9.60±5.69	2.89 (.023)	4.43±4.90	25.99 (<.001)	6.25±6.29	82.43 (<.001)				
	3-4	13.20±6.82	0.05 (.986)	12.72±7.08		9.11±7.05		12.74±6.99					
	5-6	13.29±6.56		14.39±7.02		8.21±5.41		12.96±6.83					
	Above 7	12.33±7.23		16.67±6.66		11.93±5.95		12.63±6.26					

-69세가 8.62명, 70세-79세가 4.32명, 80세-89세가 3.81명, 90세 이상은 5.43명으로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F=15.89, p<.001$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지원수

성인기 생애주기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지원수는 <Table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지지원수는 성인기 전체에서는 남성이 11.36명이고 여성이 10.15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t=2.63, p<.001$ ),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지원수는 남성의 경우 성인초기 12.40명이고, 성인후기 5.95명으로 지지원수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도 성인초기 13.88명에서 성인후기 5.07명으로 지지원수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인초기의 경우 지지원수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1, p<.050$ ).

결혼 상태에 따른 지지원수는 성인기 전체에서는 미혼이 12.85명, 기혼이 11.57명, 이혼이나 사별이 3.97명, 기타가 12.00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84.67, p<.001$ ). 결혼 상태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지원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지원수가 성인초기 12.91명, 성인중기 14.70명, 성인후기 2.75명으로 성인중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원수가 성인초기 15.98명, 성인중기 13.00명, 성인후기 7.54명으로 성인중기 이후 감소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상태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지지원수를 비교해 보면, 성인초기의 경우 미혼 12.91명, 기혼 15.98명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지지원수가 많으며( $t=-2.99, p<.010$ ), 성인후기에서는 미혼 2.75명, 기혼 7.54명, 이혼/사별이 3.76명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지지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22.46, p<.001$ ).

경제 상태에 따른 지지원수는 성인기 전체에서는 '상'이 11.69명, '중'이 12.82명, '하'인 경우가 5.97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3.29, p<.001$ ). 경제 상태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지원수는 성인후기에서 경제상태가 '상'일 때 지지원수는 12.08명, '중'일 때 9.44명, '하'일 때 3.33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F=74.74, p<.001$ ),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지지원수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종교에 따른 지지원수는 성인기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종교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지원수는 성인후기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가 5.95명, 종교가 없는 경우가 4.18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t=3.01, p<.010$ ),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지지원수가 많았다.

동거가족 크기에 따른 지지원수는 성인기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2.43, p<.001$ ).

동거가족이 없는 대상자의 지지원수는 성인중기에 1명, 성인후기에 2.86명으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이 있는 대상자는 성인초기에서 성인중기, 성인후기로 갈수록 지지원수가 감소하였다. 성인중기에서는 가족 크기가 큰 경우 지지원수가 많았으며( $F=2.89, p<.050$ ), 성인후기에서도 가족 크기가 큰 경우가 지지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F=25.99, p<.001$ ), 생애주기별로 보면 성인중기와 성인후기의 대상자는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지지원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논 의

지금까지의 연구가 성인기라 할지라도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는 대상자의 사회적지지망을 살펴보았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성인기 전체를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성인초기, 중기 및 후기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서 사회적지지망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 파악해 본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사회적지지망을 의미 있는 사람들 중 친밀한 관계, 물질적 도움, 신체적 도움, 사회활동, 긍정적지지, 건강과 관련된 도움 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김광숙, 조윤희, 라진숙, 2008) 라고 할 때 사회적지지망을 구성하는 사회적 지원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과 가족 외(친구, 성직자, 의료인 등)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은 성인초기는 가족으로 부모, 형제 순위와 그 다음 가족 외로 친구 순이고, 성인중기도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 순위였고 그다음 가족 외 친구 순이었으며, 성인후기도 가족인 자녀와 가족 외 친구 순이었다. 단연, 가족이 우선순위였고 그 다음 가족 외로 친구였다. 성직자와 의료인은 누적백분율 50.0% 순위내의 사회적지지망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가실 등(1999)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한국인은 혈연과 지연을 중요시하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노인기는 만성퇴행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의료인을 중요한 지원으로 지명하리라는 기대와는 다른 한국인의 의식구조 특성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성인초기의 사회적지지망은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청년들인 관계로 부모가, 중기에는 가정을 이루어 가족을 책임지는 시기로 배우자가, 그리고 후기에는 배우자는 사망을 하고 또한 경제력이 없으므로 자녀를 첫째 사회적 지원으로 보고 있어 가족이 주요 사회적지지망임을 확인하여 준 결과이다. 한편, 엄은하(2007)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진로탐색 행동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도 주요 사회적 지지자는 부모, 선배와 친구라고 하여 성인 초기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이선옥(2001)이 사회적 지지란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로 주로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제공

된 자원이라고 설명한 지지원도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망과 관련 있는 결과이다.

성인기를 각 세부 단계 생애주기별(초기, 중기, 후기)로 사회적지지망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지지원의 종류와 중요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성인초기 대상자는 부모가 1, 2순위, 3순위가 형제, 친구는 4순위에서 9순위까지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초기의 주요 발달과업 변화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가족에서 친구집단으로 그 지지원이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경선(2009)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부모, 친구의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진로결정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부모 자녀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을 높이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박현일과 김기원(200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영향보다는 친구와 이성친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인중기 대상자에게 있어 지지원의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2, 3순위가 자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간 성장 발달주기별 사회심리 발달과업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생의 발달과업은 성인중기는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기간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주축을 이루고 자녀를 책임지는 사회적 지지관계 속에 있게 된다. 오세진 등(2010)에서 성인중기는 신체적 건강과 생성감에 중요도를 두는 시기이고, 직업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책임지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시기인 만큼, 배우자, 부모, 자녀, 직장선후배, 친구 등이 중요한 지지원이라고 하여 이들의 사회적지지망이 더욱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성인중기에 해당되는 연령을 만 40세에서 64세까지로 분류하였는데 타 연구에서 중년기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인 40세에서 59세까지의 범위 보다는 높은 연령이 포함되었던 것이 자녀가 2, 3순위를 차지한 결과를 나타내 준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혼 상태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성인초기와 후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중기에서는 미혼과 기혼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김정선과 신경림(2004)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연구에서 결혼 상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미혼이 평균 89.24점이고 기혼이 평균 87.0점으로 미혼이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중 성인중기의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여(남성 134명, 여성 128명)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연구로

은퇴한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은영(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은퇴한 남성 노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구성원들로는 배우자에 의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받는다는 결과와 중년 남성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본 이영희(2002)의 연구 결과 중년 남성에게 제공된 사회적지지 중 가족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가장 긍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이로써 성인중기 이후의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지지원의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혼이나 이혼/사별을 한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기혼의 대상자가 많았으므로 나타나는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조영숙(1994)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로 인해 임부는 강한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고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태아애착행위가 증가한다고 하여, 중년기에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함을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강혜원과 한경혜(2005)는 부정적인 가족 생활 사건에 대하여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는 남녀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사회적 변인으로 친구의 지지와 가족의 지지가 30-59세까지의 성인들의 운동행동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양재근, 이종훈, 김영호, 현승권, 2006). 성인중기는 신체적 건강과 생성감에 중요도를 두는 시기이고, 직업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책임지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시기인 만큼, 배우자, 부모, 자녀, 직장선후배, 친구 등이 중요한 지지원임을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한 지지원으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다른 지지원으로 보상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성인후기 대상자는 1순위에서 7순위까지를 모두 ‘자녀’라고 응답하였다. 이 시기는 질병과 연관되는 경제적 지지나 물질적 지지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래서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반필주, 2010). 성인후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에서 가족은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된다. 본 연결과에서 성인후기에는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전체 57.6%를 차지하였으므로, 사회적 지지원의 우선순위는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결과로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노년의 지지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실정임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므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노년기를 영위하는 노후대책의 중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사회적지지망에서 생애주기별(초기, 중기, 후기)로 사회적 지지원수를 본 결과, 평균 성인초기는 13.23명, 성인중기는 12.93명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성인후기는 5.30명으로 급감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노인기에는 가족과의 사별, 자녀도 중년기가 되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사는 현실, 노인과 동거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변화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

들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노인기의 4대 공통 중에 역할상실과 고독이나 외로움이 해당되는 것도 이런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적지지망 확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 중의 가족 수에 따른 지지망의 지지원수에는 차이가 있었는지를 각 생애주기별로 본 결과, 성인초기 대상자의 경우는 가족 수에 따른 지지원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중기와 후기 대상자의 경우 모두 가족 수의 증가에 따라 지지원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성인중기 이후의 사회적 지지망은 가족이 사회적 지지의 중심이 되며,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가장 원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며, 특히 노년기가 되면 지지망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제한된 활동능력과 지지망 구성원의 변화에 의해 다른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초기인 청소년, 청년기는 학교생활이나 사회초반 활동을 통하여 관계망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었으나 성인이후가 되면 배우자의 사별, 자녀는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따로 거주하므로 지지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강정희 등, 2008). 이영주(2003)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정도가 유의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물질적 사회적 지지가 많을 때의 동거형태에서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가장 무력감이 적었고, 다음이 독거, 양로원 순이었으며 물질적 지지가 적을 때는 양로원이 가장 무력감이 낮았고, 그 다음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독거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오세진 등(2010)에서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성인이후기의 대상자는 결혼상태 여부, 경제상태, 종교의 유무, 동거 가족 수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지지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성인이후기에는 사회적 지지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은 노인이 가진 대부분의 사회적 지지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 가족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비해 동거 가족이 많은 경우 사회적 지지원수에 있어서도 많다. 이는 노인의 건강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과 사회적지지 관련요인을 확인한 반필주(2010)의 연구에서 월 1회 이상 접촉하는 빈도가 가족, 친구, 이웃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접촉대상과 참여활동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사회적 지지가 더 높았다는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여러 지지영역 중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으로 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추가로 사회적 지지망의 지지관계 24번 순위까지 즉 24개 지지원 모두를 작성한 응답자의 24번째 지지원(121명) 중 전

체 10명 이상 응답한 빈도는 친구, 선후배, 친척 및 직장동료였다. 24번까지 응답한 지지원이 친구, 선후배 및 직장동료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사회적지지망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해 주는 의식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사회적지지망 비교에서는 성인이후기가 지지원수의 빈도가 가장 낮고, 지지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지지원수가 유의하게 많고, 기혼상태가 지지원수가 많았다. 성인이후기의 사회적지지망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지지원수가 많았고,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지지원수도 감소하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회적 접촉으로 지지원수가 많았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이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인이후기인 노년기가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망이나 자녀들의 또 다른 가정 구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원수가 적어지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배우자나 자녀 출산의 관계에서 오는 지지원수가 그 만큼 많아지므로(오가실 등, 1999) 기혼자의 지지원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인이후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독거노인보다 지지원수가 많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노인이 지지원수가 많으며, 경제적 상태가 나쁠수록 지지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도 실제 사회실정을 그대로 반영하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로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간호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이후기의 주기별 사회적 지지망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서술적 연구이며, 자료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및 전남 6개 지역으로 서울 170명, 경기 352명, 강원 175명, 충북 107명, 충남 144명 및 전남 99명으로 성인기의 생애주기별 및 지역을 고려한 연구대상은 성인초기는 454명, 성인중기는 262명, 성인이후기는 331명으로 총 1,047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성인초기는 22.4세, 성인중기는 48.9세, 성인이후기는 75.8세 이다. 성별은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에는 남녀 분포가 비슷하였으나, 성인이후기에는 여성이 73.6%로 가장 높았다. 결혼 상태는 성인초기는 미혼이 89.4%로 높았으며, 성인중기는 기혼상태가 92.4%였으며, 성인이후기는 이혼이나 사별을 한 대상자가 57.6%로 많았다. 경제 상태는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에는 ‘중’이 많았고, 후기에는 ‘하’가 많았다. 중



교는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모두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가족 수는 성인초기, 성인중기 모두 3-4명이 많았고, 성인후기에는 없거나 1-2명인 경우가 많았다.

지지원의 종류와 중요도에서는 성인초기는 ‘부모’를 1, 2순위로 응답하였으며, 3순위로는 ‘형제’, 4순위에서 9순위까지는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성인중기는 ‘배우자’를 1순위, ‘자녀’를 2, 3순위, ‘형제’를 4순위, 5순위에서 9순위가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성인후기는 1순위에서 7순위까지를 모두 ‘자녀’라고 응답하였으며, 8, 9순위가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지지원수는 평균 성인초기는 13.23명, 성인중기는 12.93명, 성인후기는 5.30명으로 감소하며, 성인후기가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에 비하여 지지원수가 적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사회적 지지망에 있어서 지지원수는 성인초기에는 성별과 결혼 상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여자가 남자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지지원수가 많으며, 성인중기에는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인후기에는 결혼상태, 경제상태, 종교, 가족 수에 따라 차이를 보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제상태가 높은 경우, 종교를 가진 경우, 가족 수가 많은 경우가 지지원수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망은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별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지원의 종류, 중요도, 지지원수에 다양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중재를 계획함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사회적 지지망의 특성을 고려한 사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성인기의 초기, 중기 및 후기의 생애주기에 따라 중요한 지지원의 대상이 다르므로, 성인기 주기별로 중요한 지지원을 사회적지지망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확인하는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성인후기인 노인기는 성인초기 혹은 성인중기에 비하여 지지원수가 유의하게 적으므로 지지망의 수를 확대시켜 사회적 지지를 증대시키는 국가정책 차원의 방안 모색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참고 문헌

- 강정희, 김정아, 오가실, 오경옥, 이선옥, 이숙자, 전화연, 김혜령 (2008).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의 건강상태, 우울, 사회적지지. *성인간호학회지*, 20(6), 866-882.
- 강혜원, 한경혜 (2005)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배우자지지와 정신건강-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8), 55-68.
- 박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9-177.
- 김광숙, 조윤희, 라진숙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망 및 건강습관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2), 11-223.
- 김란이, 용진선 (2005).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자기간호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270-277.
- 김연정, 이광자 (2010). 유방암과 간암환자의 자살생각, 사회적지지 및 삶의 의미 간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40(4), 524-532.
- 김정선, 신경림 (2004). 성인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4(2), 352-361.
- 김혜령, 오가실, 오경옥, 이선옥, 이숙자, 김정아, 전화연, 강정희 (2008).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삶의 질. *대한간호학회지*, 38(5), 694-703.
- 노필순, 윤혜미 (2007).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 *학교사회복지*, 12, 23-46.
- 박헌일, 김기원 (2001).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계명연구논총*, 19(1), 7-23.
- 반필주 (2010). 노인의 건강수준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영향과 사회적지지 관련요인. 인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양재근, 이종훈, 김영호, 현승권 (2006). 성인들의 운동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적 변인과 심리적변인의 관련성. *체육과학연구*, 17(1), 119-130.
- 엄은하 (2007).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진로 탐색행동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오가실, 박영주, 오경옥, 김정아, 이숙자, 김희순, 정추자 (1999). 한국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대한간호학회지*, 29(4), 780-789.
- 오세진, 김용희, 김청송, 김형일, 신맹식, 양계민, 양돈규, 이요행, 이장한, 이재일, 정태연, 현주석 (2010).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윤진 (1985).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은영, 고성희, 김명자, 김진선, 박명화 (2010). *노인전문간호총론*. 서울: 현문사.
- 이경선 (200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선옥 (2001).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1), 113-125.
- 이선옥 (2003a). 만성관절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9(2), 253-263.
- 이선옥 (2003b).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36, 299-311.
- 이영주 (2003).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무력감의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이영희 (2002),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2(4), 539-549.
- 이은영 (2007). 노인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사회적지지, 고독감 및 사회관계망의 관계.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전미숙, 김현옥 (2011). 학령기아동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2(3), 272-280.
- Murrell, S., Norris, F., & Chipley, Q. (1992). Functional versus Structural in Older adults. *Psychological Aging*, 7, 562-570.
- Norbeck, J. S., Lindsey, A. M. & Carrieri, V. L. (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5), 264-269.
- Oh, K. S. (1984). *Family Function and Social Support of Korean Families with Mentally-retarde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ersity, Texas, U.S.

## A Study on Social Support Networks for Each Life-cycle Stage of Adults\*

Jeong, Chu-Ja<sup>1)</sup> · Lee, Sun-Ock<sup>2)</sup> · Kang, Jung-Hee<sup>3)</sup> · Kim, Jeong Ah<sup>4)</sup> · Kim, Hye-Ryoung<sup>5)</sup>  
Oh, Kyong-Ok<sup>6)</sup> · Lee, Sook-Ja<sup>7)</sup> · Jun, Hoa-Yun<sup>8)</sup> · Hong, Sung Kyung<sup>9)</sup>

-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zhong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3)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University  
4)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5)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7)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8)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College  
9)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ocial support networks for each life-cycle stage of adults. **Method:** A total of 1,047 subjects included 454 young adults, 262 middle-aged adults and 331 senior adults. Data were collected using Oh's Korean Version Norbeck's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NSSQ),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Result:** For the young adults, parents were the top and second priority as important social support resources, the third was siblings, and then friends. For the middle-aged, spouse was the first priority as an important social support resource, while the second and the third were children. For the senior adults, children ranked from the top to the seventh priority. The mean number of social support resources was 13.23 for the young adult, 12.93 for the middle-aged and 5.30 for the senior adults. Social support networks of the young adult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and marital status. That of the middle-aged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family size. In addition, that of the senior adul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arital status, economic status, religion and family size. **Conclusion:** It is essential to consider social support networks for each life-cycle stage of adults when making a social support intervention program.

**Key words :**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network, Life-cycle stage, Adult

\* This study was completed by the members of Social Support Interest Group of Lambda Alpha Chapter-At-Larg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Sun-Ock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69, Dongsung-Dong, Jongno-Gu, Seoul, Korea(ZIP:110-791)  
Tel: 82-2-3668-4703 FAX: 82-2-3673-4274 E-mail: solee@mail.knou.ac.kr